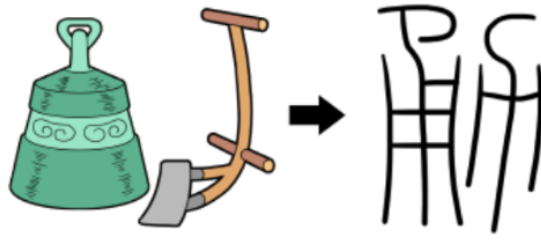


6(2)  
-  
51

회의문자 ①



勇

날랄 용

勇자는 '날래다'나 '용감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勇자는 甬(길 용)자와 力(힘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甬자는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이다. 쇠로 만들어진 종은 무게가 상당했을 것이다. 勇자는 이렇게 종을 그린 甬자에 力자가 결합한 것으로 무거운 쇠 종을 들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용기, 결단력을 뜻한다. 勇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날래다'나 '용감하다',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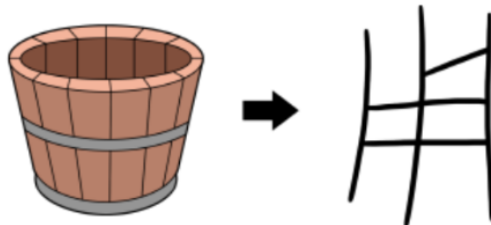
소전

勇

해서

6(2)  
-  
52

상형문자 ①



用

쓸 용

用자는 '쓰다'나 '부리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用자는 주술 도구를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걸개가 있는 '종'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用자의 쓰임을 보면 이것은 나무로 만든 통을 그린 것이다. 用자가 '나무통'을 뜻하다가 후에 '쓰다'라는 뜻으로 전용되면서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결합한 桶(통 통)자가 '나무통'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用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다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나무통'이라는 뜻을 전달한다.

用

갑골문

用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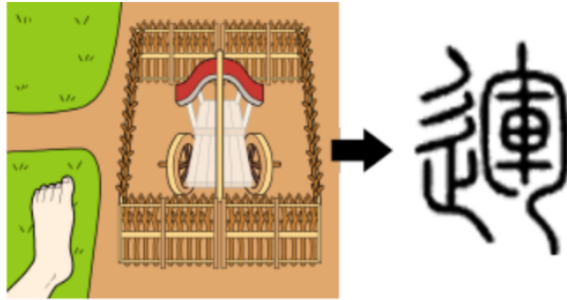
用

소전

用

해서

회의문자 ㉠



運

운전할/  
움길  
운

運자는 '움직이다'나 '움기다', '운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運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軍(군사 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軍자는 진을 치고 있는 군대를 그린 것으로 '군사'나 '진치다'라는 뜻이 있다. 군대는 상황에 따라 대규모 이동을 해야 한다. 이때 전쟁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옮기게 되는데, 運자는 군대가 짐을 꾸러 이동한다는 뜻이다. 運자는 '움직이다'나 '움기다'와 같은 뜻 외에도 '운용하다'나 '쓰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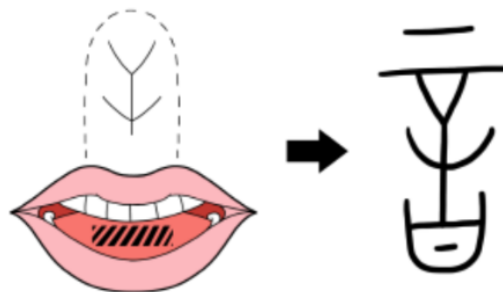
運

소전

運

해서

지사문자 ㉠



音

소리 음

音자는 '소리'나 '말', '음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音자에 '말'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音자가 言(말씀 언)자와 같은 문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는 '소리'와 '말'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음악'과 '말'을 구별하기 위해 기존의 言자에 획을 하나 더 긋는 방식으로 音자를 만들어냈다. 사실 갑골문에서의 言자는 마치 나팔을 부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생황(笙簧)이라고 하는 악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고 나팔을 부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단순히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려던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音자는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소리'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音

금문

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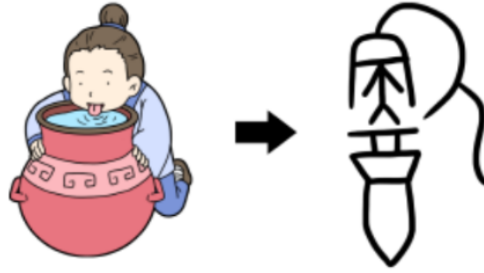
소전

音

해서

6(2)  
-  
55

회의문자 ①



飲

마실 음

飲자는 '마시다'나 '음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飲자는 食(밥 식)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欠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飲자는 식기에 담긴 것을 먹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飲자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갑골문에서는 술병을 그린 酉(닭 유)자 앞에 헛바닥을 내밀은 사람이 𩚑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술병에 담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飲자의 본래 의미는 '술을 마시다'였다. 그러나 후에 酉자가 食자로 바뀌면서 단순한 의미에서의 '마시다'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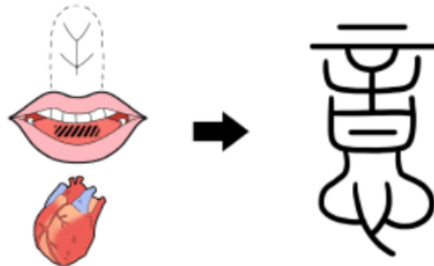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56

회의문자 ①



意

뜻 의

意자는 '뜻'이나 '의미',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意자는 音(소리 음)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音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뜻하는 音자에 心자가 결합한 意자는 '마음의 소리'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옛사람들은 생각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意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는 의미에서 '뜻'이나 '의미', '생각', '헤아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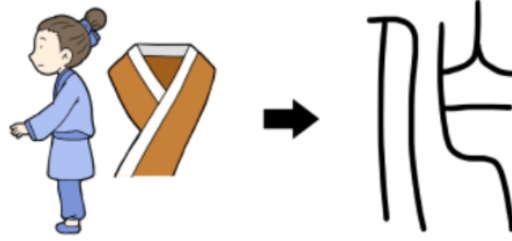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57

회의문자 ①



作

지을 작

작자는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作자는 人(사람 인)자와 乍(잠깐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乍자는 옷깃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옷깃에 바느질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작업하기가 쉬웠었는지 乍자는 후에 '잠깐'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人자를 더한 作자가 '만들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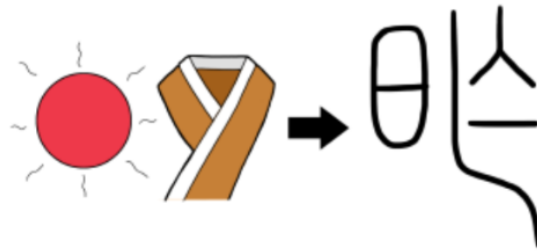
소전

作

해서

6(2)  
-  
58

회의문자 ①



昨

어제 작

昨자는 '어제'나 '지난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昨자는 日(해 일)자와 乍(잠깐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乍자는 옷깃을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잠깐'이라는 뜻이 있다. 昨자는 이렇게 '잠깐'이라는 뜻을 가진 乍자에 日자를 결합한 것으로 '잠깐 전에 지나간 날' 즉 '어제'나 '지난날'이라는 뜻이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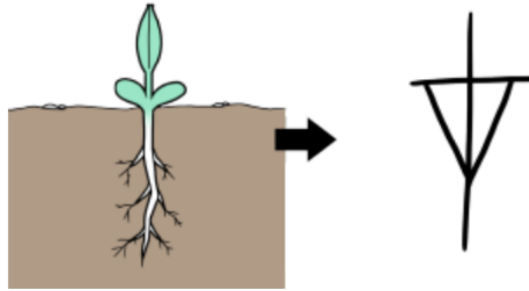
소전

昨

해서

6(2)  
-  
59

상형문자 ①



才

재주 재

才자는 '재주'나 '재능',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才자는 手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才자를 보면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才자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재능이 있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보고 '싹수가 보인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니 才자는 힘 있게 올라오는 새싹을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에 빗대어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갑골문과 금문에서의 才자는 종종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후에 土(흙 토)자가 더해진 在(있을 재)자가 만들어지면서 뜻이 분리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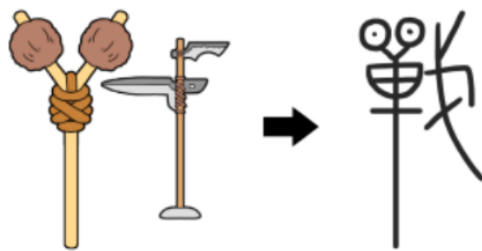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60

회의문자 ①



戰

싸움 전

戰자는 '싸움'이나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戰자는 單(홀 단)자와 戈(창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單자는 새총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사냥도구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사냥이나 무기로 사용하던 도구에 戈자가 결합한 戰자는 '전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고대에 사용하던 대표적인 무기들을 나열해 서로 다투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



소전



해서